

어린이책 들춰보기

그림일기

박민호 지음 / 박정원 그림

나눔자리 / A6변형 / 96면 / 1000원

용우네 아버지는 용우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냉차장사를 한다. 팔이 한쪽밖에 없는 용우 아버지는 엄마없는 용우를 혼자서 어렵게 기르지만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 등 똑같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공짜로 냉차를 주는 마음 좋은 아저씨다. 어느날 아버지가 불량식품단속반에 걸려 리어카를 빼앗기는 모습을 목격한 용우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날밤 용우의 「그림일기」에는 한쪽팔없는 아버지와 실려가는 리어카가 용우의 눈물에 얼룩져 그려진다. 현재 성베네딕도회 수사로 있는 작가의 아름답고 가슴찡한 동화 4편이 실려 있다.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김충원 지음 · 그림

진선 / A5신 / 230면 / 3000원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는 동물들의 세계를 생생한 자료화면과 함께 퀴즈로 알아가는 KBS-TV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서 삽화를 그리고 있는 작가가 방송원고들을 보충해 동물들의 놀랍고 신비한 세계를 지면에다 옮겨놓았다. 「포유동물의 세계」 「찬피동물의 세계」 「새와 곤충의 세계」 등 모두 3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의 두번째권으로 파충류, 양서류, 연체동물, 극피동물 등의 전혀 몰랐던 세계를 보여준다. 동물도감이나 학습서와는 또 다르게 어린이들의 탐구욕을 불러일으키는 책.

이야기로 공부하는 재미있는 산수

권영한 지음

전원문화사 / A5신 / 234면 / 3000원

어렵고 재미없어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없는 과목중의 하나인 산수. 이 산수과목의 공부하는 방법과 기초적인 수의 개념과 역사 등을 관련그림과 이야기를 곁들여 알기쉽게 설명해줌으로써 흥미롭고 신비로운 산수의 세계로 이끄는 책.

“어떤수에 그 수의 1/5을 더하면 21이 된다. 그 수는?” BC5000년경 이집트사람들을 울렸다는 이 문제는, 이미 답을 아는 것처럼 가정해놓고 풀면 간단하게 풀린다. 이처럼 산수의 셈과 일상사의 문제를 연결지어, 지혜롭게 사는 법도 가르쳐주는 것이 산수의 묘미임을 이 책은 일러준다.

큰 나무가 작은 나무에게

하청호 지음 / 송희정 그림

대교출판 / A5신 / 208면 / 2500원

국민학교 교사이며 동화작가로 「보리 보리 문둥아」 「별과 선생님」 등의 작품집을 이미 낸 바 있는 저자의 어린이 수필집.

20여년간 교단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또 동화 동시를 써오며 그 속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을 수필이라는 편안한 형식에 담아 어린이들에게 들려준다.

어린시절 모깃불재 속에 감자를 넣어두었다 꺼내먹던 이야기, 가난한 공장노동자이지만 자녀들로부터는 가장 존경하는 이로 꼽히는 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父子性 등 옛이야기처럼 푸근한 이야기 40편이 실려 있다.



안데르센 동화집 · 1

이가형 옮김

경원각 / A5신 / 224면 / 2500원

130여편의 동화를 통해 세계어린이들과 친숙한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대표작 모음.

옛날 중국의 왕궁정원에 멋진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작은새의 이야기 「나이팅게일」을 비롯해서, 한때 고액의 화폐로 가치를 인정받았던 한 은화가 세월이 흘러 더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가짜화폐로 둔갑하여 이순저손을 거치며 속임수로 사용되다 비로소 어느 사람의 눈에 띄어 회귀화폐로 인정받기까지 주위의 물이해를 견뎌 결국 영광을 얻는다는 「은화」 이야기 등 모두 9편의 이야기가 첫째권에 담겨 있다.

춘향전 · 심청전

권오석 엮음

대일 / A5신 / 268면 / 2000원

판소리 열두마당에 속하며,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고대소설로 손꼽히는 춘향전과 흥부전을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엮은 책.

이 두 고전소설은, 춘향이 옥에 갇혔다가 이도령의 암행어사 출두로 풀려나서 갑자기 행복해지고, 또 심봉사가 죽은 줄 알았던 딸 심청이를 만났을 때 갑자기 눈을 뜬다는 등 고대소설이지만 현대소설에 버금가는 뛰어난 소설기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는 고전들.

한편, 심청전은 흔히 조선조 숙종때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는 고증을 통해 소설의 무대를 고려시대로 잡고 있다.

양심저울과 반장선거

신동일 외 지음

유유문화사 / A5신 / 228면 / 2500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른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는 동화들의 모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국민학교 6학년 4학년짜리 경수 경미, 이렇게 다섯식구가 한지붕 아래 모여사는 경수네. 학교에서 '가족신문' 만들기 숙제를 내주자 모두 골똘히 생각하여 의견을 말한다. 어른이 할것없이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받고, 서로 양보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민주가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비둘기의 합창」 외에도 4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민족전래동화

허순봉 지음 / 김승연 그림

아동문예 / A5신 / 196면 / 2500원

옛날옛적에 어느 산촌에 부부가 살았는데, 늙도록 자식이 없어 날마다 산신령에게 “제발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기도드렸다. 10년쯤후 이들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다. 그러나 태어난 아들은 다리는 두쪽인데 눈도 하나 팔도 하나인 ‘반쪽이’였다. 그런데 반쪽이는 크면서 놀라운 힘을 가져, 파리를 잡는다고 소를 쳐 죽이는가 하면 나무를 통째 뿔아 버리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어린시절 할머니 무릎에 누워 반쯤 났나간 아이처럼 즐겨듣던 우리네 전래동화 31편이 실려있다.